



# *natural abode*

1650년에 지어진 오래된 마레의 건물 로프트를 자신의 것으로 변신시킨  
 바네사 브루노. 새하얀 공간에선 자연스러운 멋을 강조하는 디자이너의 개성이 그대로 묻어난다.  
 PHOTOGRAPHY FRANÇOIS COQUEREL

파리의 마레에 자리한 바네사 브루노의 로프트 거실.  
 오래된 건물의 정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천장 대들보와 새하얀 벽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편안한 컬러의 가구와 개성 넘치는 텍스타일이  
 그녀의 취향을 대변한다.



파리의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마레 거리, 마레 중에서도 파카스 미술관과 파리 국립 문서 보관소를 이용한 오래된 건물에 디자이너 바네사 브루노(Vanessa Bruno)의 집이 자리하고 있다. 97년 첫 번째 컬렉션을 선보인 후 자연스러운 맛이 담긴 스타일로 전 세계 여성을 사로잡은 그녀의 보급자라는 어떤 모습일까. "전 이곳 마레에서만 25년을 넘게 살았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사람 사는 동네'의 따스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국립 문서 보관소의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창문 앞에서 <보그 코리아> 취재 팀을 맞이한 바네사 브루노는 우선 동네 자랑에 나섰다. "특히 매력적인 건 이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와 배경이죠."

바네사 브루노 역시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 모델 출신 덴마크인 어머니와 패션 사업을 하던 이탈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파리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러한 다채로운 문화의 믹스는 마레의 아파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낡은 나무 대롱보가 천장을 장식한 새하얀 공간은 클래식한 프랑스식 아파트보다는 덴마크의 로프트에 더 가까워 보였다. 1650년에 지어진 이 오래된 건물로 이사 온 것은 10년 전. 지금은 거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왼쪽에 자리한 아파트에서 8년을 살다가 2년 전 옆집도 구입해 하나의 집으로 합쳤다. "집을 확장하고 인테리어를 바꾼 후 저희 집을 취재하는 건 <보그 코리아>가 처음이에요. 직감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주방 공간이 이제 거실이 되었고, 넓어진 공간 덕분에 아주 커다란 다이닝룸을 가지게 되었죠. 파리에서 오픈 키친과 다이닝룸,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실을 가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집의 구조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 집을 선택한 이유인 화사한 채광은 그대로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공간 사이의 비어 있는 느낌이 좋아요. 아주 커다란 오브제와 가구를 들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대로 집 안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하거나 거대한 가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큰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서로 나긋나긋하게 속삭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의 집. 부드러운 분위기. "편안한 가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르딕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디자이너 가구만 고집하지 않아요. 북유럽 디자인 가구와 현대미술, 골동품 상점에서 구한 빈티지 가구, 베퉁시장에서 발견한 텍스타일, 제가 직접 만든 물건이 모두 한곳에서 어우러지며 저만의 개인적인 취향을 완성하는 셈이죠."

그녀가 특히 좋아하는 건 텍스타일 인테리어. 거실의 레이스 커튼은 원래 결혼식장의 테이블보로 사용되던 천을 재활용한 것이며, 거실에 있는 두 개의 빈티지 의자와 다이닝룸 속 소파는 모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보그 코리아>의 촬영을 위해 자신의 로프트를 공개한 바네사 브루노. 브루노는 빈티지 패브릭으로 소파와 쿠션을 장식하는 것을 즐긴다. 벽난로 대신 양초를 장식한 침실.



두 빈티지 소재를 이용해 리폼한 것이다. 집 안 전체의 톤은 편안한 화이트와 베이지로 정하고, 그 속에서 텍스타일만으로 변화를 주는 것. "예를 들어 거실의 커다란 소파 두 개는 모두 런던의 빈티지 숍에서 구입한 것이예요. 특별한 것 없는 광범한 소파지만, 담요나 쿠션에 변화를 주면 새로운 기분을 선사할 수 있어요." 그녀가 다양한 패브릭만큼 좋아하는 것은 양초 인테리어. 간을 특성상 벽난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벽난로 대신 유리 장을 마련하고 그 안을 양초로 장식한 것. "이건 긴긴 겨울 동안 양초로 따스함을 유지하는 덴마크의 전통이예요. 특히 다른 조명 없이 거울에 반사되는 촛불로 밝힌 다이닝룸의 분위기는 정말 근사합니다."

루이 14세 양식의 벤치, 베퉁시장에서 구한 버들광주리, 발리 여행에서 가져온 부채 등 그녀가 직접 모은 아이템이 곳곳을 장식하는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주인공은 현대 예술 작품. 갤러리스트인 남편 프랭크 엘바즈(Frank Elbaz, 마레에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러리를 운영 중이죠)가 직접 고른 작품은 조용한 분위기의 집과 꼭 어울린다. 월레스 버만(Wallace Berman), 대시 스노우(Dash Snow), 실라 히크스(Sheila Hicks), 파올라 피비(Paola Pivi) 등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사진과 작품이 곳곳에서 그녀를 반긴다. "저희 집에 둘 작품은 남편과 같이 있게 상의한 다음 결정합니다. 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를 주는 거대한 예술 작품보다는 같이 생활하기에 편안한 사진 작업을 선호하는 편이예요. 이 모든 작품이 제 디자인 작업에도 영향을 끼치죠."

여유롭게 자신의 집을 소개하던 브루노는 다이닝룸의 테이블에 앉아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공유하는 순간순간이 소중한데요. 그렇기에 이곳 인테리어를 가장 신경 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 완벽하게 세팅된 집사와 커튼리거가 놓인 공간보다는 아이들의 책가방이 놓여 있고,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 흘려도 식히고 닦아내고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흐르는 곳을 꿈꿨다. "무엇보다 집은 편안해야 하니까요. 촛불이 반짝이는 어두워진 저녁, 조용한 대화가 흐르는 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어요."

에디터 / 손기호, 현지 진행 / 정혜신(마리 통신원)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바네사 브루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부엌과 다이닝룸. 깔끔한 디자인의 욕실.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창문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따사로운 거실의 풍경.

